



다음 내용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각종 통계 자료(e-나라지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어른들은 언제나 ‘세상 참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지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945년 해방 후 60여 년 동안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통계를 통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더 오래 살고, 아이들은 적어지고

평균 수명 1971년 남자 59세, 여자 66세 → 2010년 남자 77.2세, 여자 84.1세
총인구 1948년 2,000만 명 → 2010년 4,941만 명
1~14세 인구 1955년 40% → 2010년 16.1%

1948년에 2,019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0년 현재 4,941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방 이후 2.5배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평균 수명도 2010년 남자 77.2세, 여자 84.1세를 기록해 1971년(남자 59세, 여자 66세)보다 18세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1세에서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1960년 42.3%에서 2010년 16.1%로 크게 줄었습니다.

남자는 건장해지고 여자는 똥다리가 되고

17세 남 1965년 163.7cm → 2007년 172.8cm
여 1965년 156.9cm → 2007년 160.4cm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17세 청소년의 키는 1965년 남자 163.7cm, 여자 156.9cm에서

2007년 남자 172.8cm, 여자 160.4cm로 각각 9.1cm와 4.5cm가 커졌습니다. 남자는 앉은키도 같은 비율로 커졌지만, 여자는 앉은 키 성장 비율이 더 낮아 상대적으로 더 ‘롱다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은 체중이 54.3kg에서 64.5kg으로 10.2kg나 증가한 반면, 여자는 4kg 정도 늘었습니다.



콩나물 교실은 없어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1인당 학생 수 1952년 60명 → 2010년 18.7명

선생님 한 명이 맡아서 가르치는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52년에 60.2명이었던 데서 2010년에는 18.7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각각 41.8명과 37.9명이었던 데서 18.2명과 15.5명으로 크게 줄었어요. 대학교는 1952년 25.7명에서 2010년엔 24.9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10가구 중 9가구가 자가용을 가지고

1955년 3,000대 → 2010년 1,312만 5천 대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55년 1만 8천 대에서 2010년엔 1,794만 대로 늘었고, 그 중에서도 자가용 승용차는 3,000대에서 1,312만 5천 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1가구를 4명으로 보았을 때 1970년에 100가구 중 1가구만 갖고 있던 자가용 승용차를 이제는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갖고 있는 셈입니다.



물가는 엄청 오르고

1965년 1만 원 → 2006년 29만 4,000원

2006년의 물가는 1965년보다 29.4배가 올랐습니다. 즉, 1965년에 1만 원으로 살 수 있던 상품을 이제는 29만 4,000원을 주어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 소득은 2만 달러를 넘고

1953년 67달러 ⇨ 2010년 2만 759달러



1953년 6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 소득은 1977년에 1,000달러를 넘어섰고 1989년에는 5,000달러, 1995년에는 1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0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만 759달러가 되었습니다. 1953년과 비교한다면 30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해외여행 천만 명 시대가 열리고

1960년 8,000여 명 ⇨ 2010년 1,248만 8,000명

1960년에 8,000명 정도였던 해외여행자는 2010년 1,248만 8천 명으로 1,630배가 늘어났습니다. 해외 여행객 1인당 소비금액은 582달러에서 2,000달러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 명이 200만 원 정도를 쓰고 온 셈입니다.



수출 대국으로 도약하고

1948년 2,200만 달러 ⇨ 2010년 4,674억 달러

1948년에는 2,2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던 수출이 2010년에는 4,664억 달러로 무려 2만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 상품도 농산물과 옷, 신발, 가발 등 경공업 제품에서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정보기술(IT)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세계 5위의 생산국이고, 조선과 메모리 반도체는 흔들림 없는 세계 1위입니다.



국토 면적도 늘고

1949년 9만 3,634천km² ⇨ 2010년 10만 33km²

국토 면적은 1949년 9만 3,634km²였으나 간척사업 등을 통해 확장되어 2010년에는

10만 33km²로 6.8%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논밭은 1995년 21,039km²에서 2010년 19,617km²(논 11,834km², 밭 7,783km²)로 줄어들었습니다.



도로도 길어지고

1947년 2만 4천km ⇨ 2010년 10만 5,565km

전국 도로의 총길이기도 1947년에는 고작 2만 4천km였지만 2010년에는 10만 5,565km (도로 포장율 79.8%)가 넘습니다. 4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보릿고개는 먼 옛 이야기

쌀 생산량 1945년 185만 톤 ⇨ 2010년 491만 6,000톤

농가인구와 농경지는 급속히 줄었지만 쌀 생산량은 1945년 185만 톤에서 2010년에는 491만 6천 톤으로 60년 사이 2.7배 증가했습니다.

